



2 Music Live



Hungary-Korea
Society

헝가리·한국 친선 협회 회장 안드레아 세고 교수 한국의 위대한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활동 소개가 중요 목표



“2014년 5월 1일에 서울에서 Cimbalom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Liszt, Kodály와, Bartók의 Cimbalom 연주가 포함된 작품들이 연주되었습니다. 공연 장소는 예술의전당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역사상 처음으로 헝가리 작곡가의 작품으로만 엮은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Zoltán Kodály의 〈Háry János 모음곡〉 중 ‘Intermezzo’, Béla Bartók의 〈바이올린과 Cimbalom Rhapsody〉과 〈Concerto〉가 연주되었습니다. Concerto 이외에는 모두 한국 초연이었습니다.”

동양적 균형 기초 두 민족의 전통문화 소개하는 데 중점

우연히 음악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안드레아 세고(Andrea Szego) 회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헝가리·한국 친선 협회 (Hungary-Korea Society)의 회장으로 한국 국적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가 “헝가리·한국 친선 협회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

는 한국의 위대한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도 못하는 것을 외국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2009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와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 이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민족의 동양적 균원에 기초하여 두 민족의 전통문화에 나타나는 공통점(음식, 민화, 5음 음계 등)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는 데 이바지한 뿐 아니라 양국의 파트너쉽을 견고히 다지는 데 공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1938년부터 1941년 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Zoltán Kodály의 지도를 받은 부다페스트 음악대학의 학생이었다. Kodály로부터 작곡기술을 배웠으며, 다른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Ernő Dohnányi로부터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본 협회는 이제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안익태 선생의 부다페스트 체류 시절과 관련한 여러 문헌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세고 회장은 안익태 선생의 행적을 알려준다.



①안익태 선생 흥상 제막식 ②작곡가 안익태 ③작곡가 Zoltán Kodály ④원판에서부터 대한민국 서정하 대사,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네 번째 국제의원연맹 Árpád Gogi 형가리 위원장 ⑤안드레아 세고 회장과 더뮤직 발행인 ⑥원판에서부터 서정하 대사, Zoltán Kodály 부인 Péczely Sarolta 여사 네 번째 형가리 과학 아카데미 의장 József Palinkas ⑦원쪽에서 세 번째 한국을 입은 한국 문화부 최광식 부장, 서정하 대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본 협회는 이제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안익태 선생의 부다페스트 체류 시절과 관련한 여러 문헌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세고 회장은 안익태 선생의 행적을 알려주었다.

위대한 한국 작곡가 안익태 흥상 주춧돌 놓다

"Zoltán Kodály의 작품 및 민요 연구, 음악교육 활동은 형가리 인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에국가〉를 작곡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에국가〉의 주요 모티브는 1938년에 작곡한 〈Korean Fantasy〉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Kodály도 안익태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익태는 Kodály처럼 민요학 요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Eötvös Collegium 앞에서 위대한 한국 작곡가 안익태 흥상 주춧돌을 놓은 행사를 가졌는데 한국은 서울특별시 겸 오세훈 시장, 형가리는 안드레아 세고 회장과 Árpád Gogi이 맡았다. 행사에는 Ferenc Liszt 음악 대학 Andras Batta 총장, 부다페스트 ELTE 대학교 Ferenc Hudecz 총장, Eötvös Collegium László Horváth 책임자도 연설을 했으며 Zoltán Kodály의 부인, Sarolta Péczely 여사와 안익태 선생의 딸 Eleonor Ahn 씨도 행사에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는 안익태 선생의 흥상 설립을 위해 30,000 달리를 기부했다.

당시 전시회의 모든 자료는 안드레아 세고 회장이 형가리와 한국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협회 회장 안드레아 세고 회장은 이미 2007년부터 안익태 선생에 대한 연구 사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알린다. 안익태와 부다페스트 안익태와 형가리(안익태 선생의 흥상 처음 공개), 안익태와 그의 스승, Zoltán Kodály, 안익태 흥상 준공식, 안익태와 부다페스트,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음악원과 협정서 조인(양 기관이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이른 시간 내에 친선협회가 한예종음악원에 형가리 악기 Cimbalom을 기부하기로 약속) – 형가리에서는 처음으로 본 협회와 협정, 형가리와 한국 간의 가교"(Dunaújváros 시의 Intercisa 박물관서 개최), 안익태 흥상 제막식 1주년 "유럽과 형가리의 음악계에 큰 역할을 한 안익태"라는 제목의 영화 상연 및 Cimbalom 연주회 행사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안익태 음악의 국제적 의의에 대한 강연〉을 한국예술종합학교 허영한 교수가 형가리에서 개최했다.

멀리 타국에서 한국의 사랑이요, 한국 음악계의 커다란 초석 안익태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이렇듯 형가리·한국 친선협회의 회장 안드레아 세고 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중히 여기기를 강조하며 한국과 형가리와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❷